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Perceiver's Social Value and Hair Style Variation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4. 8. 6. 접수 : 2004. 11.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ceiver's social value, hair style, and hair color of object person on image perceptions. For social value variable, materialism and traditionalism were investigated. Subjects were 343 women in Seoul. Perceiver's materialism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ption of elegance. The less materialistic group evaluated the hair style of object person more elegant than the more materialistic group. The more traditional group evaluated bright brown hairs less pretty than the less traditional group. This means that traditional people have less preferable image on bright brown hairs compared to the black and dark brown hair as it is different from Korean traditional hair color. Medium straight hair styles were evaluated lowest in preference and individuality. Short straight hairs were evaluated as the most elegant style and medium permanent hairs as the least elegant one. Long wavy hairs were evaluated highest in femininity, and straight hairs were evaluated lower in prettiness and activity than wavy hairs. The bright brown hairs were evaluated as the most individual color, and black was the least one. The bright brown was perceived lowest in elegance. Black and dark brown of the short straight hair style were perceived much more elegant than the bright brown of the same style, and black long wavy hairs were evaluated highest in femininity.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that social value, hair style, and hair color ar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when perceiving women's image.

Key words: image perception(이미지 지각), perceiver(지각자), social value(사회적 가치), hair style(헤어스타일), hair color(헤어 컬러).

I. 서 론

오늘날 헤어스타일은 복식문화의 일부로서 사회

의 개방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개성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의복의 구입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용이하며 착시효과로 얼굴형을 쉽게 교정할 수 있으므로¹⁾, 특

* 이 논문은 200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처자 E-mail : mhlee@sungshin.ac.kr

1)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컬러와 새로운 형태의 헤어스타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사회생활에서 첫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자신감과 외모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닌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복식과 함께 헤어스타일과 같은 신체장식은 착용자의 시대적 특성과 개인의 일반적 가치를 반영하는 상징적 기능을 지니며,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 있다. 가치관은 바람직한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사회적 가치관은 가치관의 하위 영역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성향을 총칭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의복의 인상형성이나 이미지 지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관찰자 특성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을 연구한 내용은 미흡한 편이며, 더구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평가와 지각자의 가치관을 관련지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헤어컬러 및 헤어스타일의 다양한 변화가 증가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지각자의 가치관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이미지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지각 대상자의 헤어스타일 및 헤어컬러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지각자의 헤어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추구 이미지와 외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헤어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식심리와 미용산업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과 이미지

개인의 헤어스타일은 인상을 평가할 때 얼굴의 생김새와 함께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미지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게 된다.

Mahannah²⁾은 검은색 및 금발 머리에 대한 연구에서 빨간 옷과 검은색 머리가 강하고 단호한 양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유양 성격을 나타내는 인상은 가발과 의복색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의복이 헤어스타일 등 다른 외모단서와 결합하여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Peterson과 Curran³⁾은 남성 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 연구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사성-매력 가설과 관련되어 짧은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수적이고, 긴 머리의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은 보다 자유주의적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에 남성의 머리 길이는 사회적-정치적 태도에 대한 단서로 보여졌다. Pancer와 Meindl⁴⁾의 연구에서도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인 경우보다 자유주의적이며 개방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장발에 대한 평가는 문화적 고정관념 및 유행과 관련되어 변화된다.⁵⁾

나광주⁶⁾는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의복이 53%, 헤어스타일이 47%라고 보고하였으며, 인체의 비율로 볼 때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작는데 비해 그 영향은 의복과 맞먹는 정도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하였다. 도주연⁷⁾은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

2) Lynn Mahannah,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3) D. Peterson and J. P. Curran, "Trait attrac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1976), pp. 331-339.

4) S. M. Pancer and J. R. Meindl,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1978), pp. 1328-1330.

5)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c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p. 165-166.

6) 나광주, *Op. cit.*

7)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65-67.

한 얼굴 이미지 연구에서 직모는 컬에 비해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컬은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적극적이며, 중간머리는 소극적이고 평범하며, 긴 머리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앞머리를 내린 경우는 촌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냈고 앞머리를 넘긴 경우는 발랄한 이미지를 주었다. 이영미, 서미아⁸⁾의 연구에서는 긴 웨이브나 단발웨이브 스타일은 개성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았고, 긴 직모, 단발 직모는 단정한 이미지와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가 높았으며 짧은 커트머리는 지적인 이미지와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휴⁹⁾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스타일은 긴 직모로서 부분 염색한 스타일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키트 직모의 전체 염색한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임희정, 이희연¹⁰⁾의 연구에서도 2/3 이상의 여대생들이 어깨길이 이상의 긴 머리를 하였고, 퍼머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긴 직모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김복숙¹¹⁾은 여성 헤어스타일 유형을 고전형, 낭만형, 자연형, 대담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헤어스타일의 인상 차이를 성숙·현시성, 호오성, 용모성, 독특성의 4개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전형은 호오성, 용모성, 독특성 요인에서, 낭만형은 독특성 요인에서, 자연형은 성숙·현시성 요인에서, 대담형은 용모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오지민¹²⁾은 머리의 붉음의 여부, 스트레이트-웨이브 정도, 앞머리 형태, 옆머리 형태, 머리 전체의

형태, 올림머리인 경우 올림머리의 위치를 기준으로 헤어스타일의 유형을 나누었으며, 이 유형에 따라 48 가지 헤어스타일을 선정하여 이를 1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헤어스타일에 대한 감정 요인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그것은 '귀엽고 세련되며 젊어보이는', '활동적이며 발랄한', '섬세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였다. 윤소영¹³⁾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요인을 호의성, 세련성, 품위성, 개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긴 머리는 호의적이고 품위있는 이미지를 주고, 단발머리는 세련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커트머리와 단발머리는 긴 머리에 비해 개성 요인이 더 높았다. 윤지성¹⁴⁾은 헤어컬러에 대한 연구에서 갈색이나 붉은 색은 검정색보다 진보적, 매력적,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어 같은 헤어스타일이라도 헤어컬러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 가치관과 외모관련행동

가치관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며, 옳다-그르다, 아름답다-추하나 등의 평가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치관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가치관은 한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다.¹⁵⁾ 가치관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가치관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성향을 측정하는 의미를 지니며, 그 요소로 민주시민의식, 경제의식, 사회갈등의식 등이 연구되었다.¹⁶⁾ 그 밖에

8) 이영미, 서미아,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1998), pp. 617-629.

9) 김양휴,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임희정, 이희연,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에 따른 헤어스타일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간호학회지* 4권 1호 (2002), pp. 35-59.

11) 김복숙,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119-200.

12) 오지민, "여성 헤어스타일과 헤어디자인 감성이미지 예측모형 개발"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14-25.

13)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51-59.

14)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100-101.

15) 정범모,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1976), pp. 17-27.

16) 배형진, "중학생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9-22.

17) 황용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18) 김동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호경향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41-56.

사회적 가치관의 내용에는 외래풍토, 물질만능, 개인주의,¹⁷⁾ 가족생활 및 전통예절¹⁸⁾ 등이 다루어졌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의류학 분야에서는 조기의 Creekmore¹⁹⁾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가격, 손질, 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많았으며, 종교적 가치관은 의복의 정숙성과 관계가 있었다. Richard와 Hawthome²⁰⁾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 상징성에 관심이 낮았고, 정치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경제성에 관심이 낮은 반면에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경제성에 관심이 높았다.

안정자²¹⁾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의복 선호색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녹색이나 청색 계열을, 경제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무채색을, 심미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하게 좋아하며, 이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특히 저명도의 짙은 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선재²²⁾의 연구에서는 밝은 색을 선호할수록 성인 여성은 경제적, 정치적 가치관이 높았으나 여대생은 종교적 가치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보색 배색을 선호하는 여성은 심미적 가치관이 낮았으나 정치적 가치관은 높은 편이었다.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²³⁾의 연구에서는 페미닌/엘레гант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이 경제적 가

치관과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았고, 패셔너블/트렌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경제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티/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가정적 가치관이 비교적 낮았고, 클래식/보수적 스타일을 선호하는 집단은 종교적 가치관이 높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용민²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관 중 소외의식이 높을수록 외보만족도가 낮았고 불결주의가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 유행, 성형 관심, 화장 관심이 높았다.

류은정, 임숙자²⁵⁾는 소비자 가치 요인에 의해 소비자 집단을 상위 지향성, 쾌락 지향성, 인간 지향성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상위 지향 가치와 쾌락 지향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는 의복의 기능적 혜택보다는 나와의 어울림 같은 심리적 혜택을 추구하며, 의복 구매시 물리적 속성보다는 디자인 속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인간 지향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은 실용성 같은 기능적 혜택을 추구하는 편이었다. 그 밖에 소비자가 사회적 승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과시적, 쾌락적 쇼핑 성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²⁶⁾ 이명희, 김영지²⁷⁾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관이 낮을수록 외국상표에 대한 관심과 품질을 인정하는 편이 높았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국내 상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심미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국내 및 외국상표 인지도가 높았고, 사회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상표인지도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지는 개인의 외모 관

19) Anna Mary Creekmore,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pp. 147-158.

20) E. A. Richard and R. E. Hawthorn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3 (1971), pp. 190-194.

21) 안정자, "가치관과 의복선호색간의 상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p. 29-33.

22) 이선재,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 1호 (1987), pp. 29-42.

23)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4호 (1995), pp. 615-627.

24) 전용민, "여자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68-69.

25) 류은정, 임숙자,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6호 (1998), pp. 749-759.

26) 구자명, 이명희, "성인여성의 가치의식과 의복쇼핑성향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3호 (1999), pp. 459-470.

27) 이명희, 김영지 "국내 및 외국 의류 상표 수용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4권 (2000), pp. 50-72.

련행동 중에서 심미성, 신분상징성, 경제성, 정숙성 등과 관계가 있고, 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이나 색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가치는 인간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동기로서 의복과 같은 외모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가치는 헤어스타일 이미지 평가나 헤어스타일 선호와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준실험방법이며, 실험설계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 \times 6 \times 3$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 \times 헤어스타일 \times 헤어컬러)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1.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 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20대 여성의 상반신의 모습으로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 것이다. 모델은 타원형 얼굴 윤곽을 지닌 20대 여성이며, 의복은 라운드 넥라인의 흰색 원피스를 착용하였다.

자극물의 제작방법은 모델이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사진을 제작한 후 이 사진을 컬러 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바꾸었다. 헤어스타일은 6가지로서 짧은 생머리, 중간길이의 생머리(턱밑 1cm 정도), 긴 생머리, 짧은 퍼머, 중간길이의 퍼머, 긴 퍼머머리를 사용하였다. 헤어컬러는 6가지 스타일을 검정, 진갈색, 밝은 갈색으로 변화시켰다. 모델의 배경은 연회색이었다. 자극물은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여 8×9 cm의 크기로 출력하였다.

자극물은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로 변화를 준 총 18 종류의 컬러 출력물로 구성되었다. 각 자극물은 헤어컬러의 변화에 따라 검정색은 A1~A6, 진갈색은 B1~B6, 밝은 갈색은 C1~C6의 기호를 붙였다. A1은 검정색 짧은 생머리, A2는 검정색 중간길이 생머리, A3은 검정색 긴 생머리, A4는 검정색 짧은 퍼머, A5는 검정색 중간길이 퍼머, A6은 검정색 긴 퍼머머리였다. B1~B6의 진갈색과 C1~C6의 밝은 갈색은 검정색의 6가지 헤어스타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림 1>은 중간길이 퍼머머리의 자극물이다.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²⁸⁻³²⁾를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조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외시켜, 6개 변인의 총 22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하였다. 변인의 내용은 선호 평가, 개성, 품위, 여성성, 귀여움성, 활동성이었고, 각 변인



<그림 1> 중간길이 퍼머머리.

28) 김복숙, *Op. cit.*, pp. 36-40.

29) 김유진, 이경희, "의복디자인의 소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7호 (2000), pp. 976-986.

30) 윤소영, *Op. cit.*, p. 34.

31) 이명희, "상징,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2002), pp. 503-514.

32) S. J. Sweat and M. A. Zentner,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1985), pp. 321-336.

33) 김동철, *Op. cit.*, pp. 78-80.

34) 백영진, *Op. cit.*, pp. 65-74.

35) 이현경, "소비자 가치와 스포츠웨어 추구해택 및 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32-34.

36) 최은영, "소비자 생활한복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82-83.

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순서대로 보면 .76, .84, .66, .68, .79였다.

사회적 가치는 선행연구³³⁻³⁶⁾에서 사용한 물질주의 가치와 전통주의 가치에 관한 문항을 각각 4개씩 8문항을 택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각각 .63, .61이었는데, 사회적 가치의 문항수가 적었으므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다. 물질주의 가치는 인생의 성취에서 물질은 중요시하며, 물질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성향을 뜻한다. 전통주의 가치는 남녀의 역할이나 가족관계 등에서 보수성을 지니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려는 것을 뜻한다.

질문지는 의복착용자인 자극물과 함께 인상차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 척도 문항과 사회적 가치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임의표집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18~55세 여성 343명으로서 1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표집된 피험자는 연령에 의한 할당표집에 의하여 각 자극물에 배치되었으며, 1개의 자극물에 36~42명이 반응하였다. 피험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18~19세가 17.5%, 20대가 46.6%, 30대가 6.2%, 40대가 21.2%, 50대가 8.5%였다. 질문지는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를 나르게 조합하여 2개의 자극물을 1세트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12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지각자의 물질주의,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 효과에서 지각자의 물질주의는 품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이 지각 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의 품위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물질주의가 낮은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의 품위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지각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은 6개 변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선호평가와 개성은 중간길이 생머리가 다른 스타일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생머리는 퍼머보다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³⁷⁾에서 중간길이 머리는 소극적이며 평범하게 보이며, 직모는 컬에 비해 수수한 이미지를 준다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였다.

짧은 생머리는 품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머리도 품위가 높았으며 중간길이의 퍼머가 가장 품위가 낮았다. 긴 퍼머와 짧은 퍼머도 품위가 낮은 편이었으므로, 품위는 전체적으로 생머리가 퍼머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윤소영³⁸⁾의 연구에서 긴 머리가 짧은 머리보다 품위있게 평가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짧은 생머리가 품위가 높게 평가된 것은 전문직 직장여성들이 짧은 생머리 스타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성은 긴 퍼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긴 생머리, 중간길이 퍼머였는데 이것은 선행연구³⁹⁾와 일치하였다. 또한 짧은 퍼머와 짧은 생머리는 여성성이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긴 머리는 여성적으로 보이며 퍼머 여부에 관계없이 짧은 머리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귀여움성은 짧은 퍼머와 중간길이 퍼머가 가장 높았고 중간길이 생머리는 귀여움성이 가장 낮았다. 활동성은 짧은 퍼머와 중간길이 퍼머가 매우 높았고 중간길이 생머리와 긴 생머리가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퍼머는 생머리보다 품위가 낮았으나, 귀여움성, 개성, 활동성이 높았으며, 짧은 생머리는 여성성은 낮았으나 품위가 높고, 긴 퍼머는 여성성은 높았으나 품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헤어컬러에 따라 선호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37) 도주연, *Op. cit.*, pp. 55-57.

38) 윤소영, *Op. cit.*, pp. 51-59.

39) 도주연, *Op. cit.*, pp. 55-57.

〈표 1〉 지각자의 물질주의,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3원 변량 분석	변량원		선호평가 <i>F</i>	개성 <i>F</i>	품위 <i>F</i>	여성성 <i>F</i>	귀여움성 <i>F</i>	활동성 <i>F</i>
		물질주의(A)		1.94	.26	7.65**	.03	.02
	헤어스타일(B)		5.03**	53.92**	41.61**	21.08**	54.53**	36.58**
	헤어컬러(C)		.04	118.88**	53.86**	4.23*	27.30**	19.09**
	A×B		.26	.91	.23	.69	.74	.55
	A×C		3.58*	.91	4.32*	.17	.60	.37
	B×C		1.74	5.76**	2.81**	3.70**	1.62	1.99*
	A×B×C		1.02	.75	1.43	1.77	.97	.90
평균	변인	속성	<i>M</i>	<i>M</i>	<i>M</i>	<i>M</i>	<i>M</i>	<i>M</i>
	물질주의	하	4.03	3.86	3.98	4.34	4.58	4.49
		상	3.91	3.82	3.78	4.32	4.55	4.58
	헤어스타일	짧은 생머리	3.89a	3.28b	4.53a	3.94cd	3.97c	4.49b
		중간 생머리	3.53b	2.84c	4.40ab	4.18c	3.57d	3.70c
		긴 생머리	4.09a	3.46b	4.22b	4.71ab	4.13c	3.94c
		짧은 퍼머	4.12a	4.37a	3.49c	3.86d	5.66a	5.29a
		중간 퍼머	4.18a	4.63a	3.08d	4.50b	5.43a	5.13a
		긴 퍼머	4.00a	4.46a	3.52c	4.85a	4.58b	4.57b
	헤어컬러	검정	3.98	3.20c	3.99a	4.40a	4.27b	4.28b
		진 갈색	3.98	3.64b	3.91b	4.41a	4.40b	4.44b
		밝은 갈색	3.95	4.70a	3.13c	4.18b	5.03a	4.89a
	개체간 효과 검정	<i>R</i> ²	.093	.480	.381	.207	.360	.285
<i>F</i>		1.89**	17.15**	11.45**	4.86**	10.47**	7.41**	

* $p < .05$, ** $p < .01$, a,b,c,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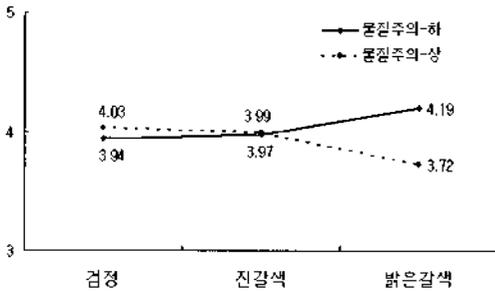
으나 선호 평가를 제외한 5개 변인의 평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헤어컬러는 선호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개성은 밝은 갈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진갈색이 높았으며 검정색 머리는 개성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선행연구⁴⁰⁾에서 갈색이나 붉은 색 머리가 검정색보다 진보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를 준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검정색 머리는 품위가 가장 높았고 밝은 갈색은 품위가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밝은 갈색은 귀여움성과 활동성이 가장 높았으며, 검정과 진갈색 머리는 밝은 갈색보다 여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물질주의와 헤어스타일은 모든 변인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나 물질주의와 헤어컬러는 선호 평가와 품위에 대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물질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2〉에서 볼 때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밝은 갈색의 선호평가가 낮았으나 물질주의가 낮은 여성은 밝은 갈색의 선호평가가 높았다. 또한 〈그림 3〉에서 볼 때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밝은 갈색을 더욱 품위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밝은 갈색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헤어컬러가 아니며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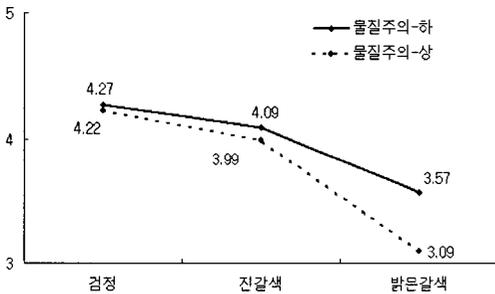
40) 윤지성, *Op. cit.*, pp. 100-101.

축적을 위해 사회상승을 하려는 욕구가 높으므로 남의 눈에 띄기 쉬운 밝은 갈색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품위, 여성



〈그림 2〉 선호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물질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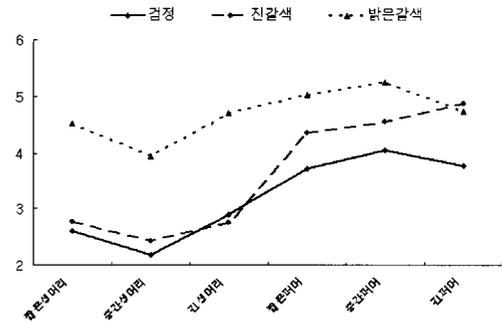
〈그림 3〉 품위에 대한 지각자의 물질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성, 활동성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집단별 평균치와 상호작용형태는 〈표 3〉, 〈그림 4-7〉과 같다.

〈그림 4〉에서 볼 때 짧은 생머리는 밝은 갈색인 경우 다른 색보다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검정 및 진갈색 생머리는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긴 퍼머머리는 대체로 개성이 높았으나 검정색 퍼머는 진갈색 및 밝은 갈색에 비해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검정색 중간 생머리는 가장 개성이 낮았다.

품위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그림 5)를 볼 때 짧은 생머리는 검정색과 진갈색인 경우 밝은 갈색보다 훨씬 더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길이의 퍼머는 품위가 낮았는데, 특히 밝은 갈색의 중간길이 퍼머는 가장 품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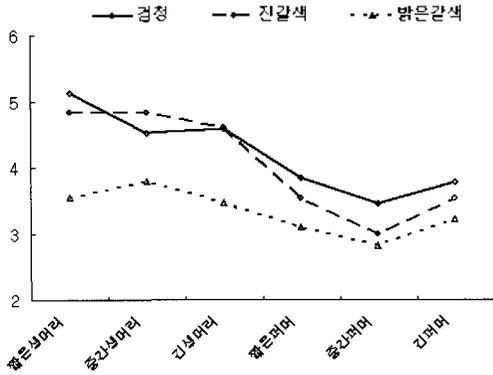
여성성의 상호작용 형태(그림 6)를 볼 때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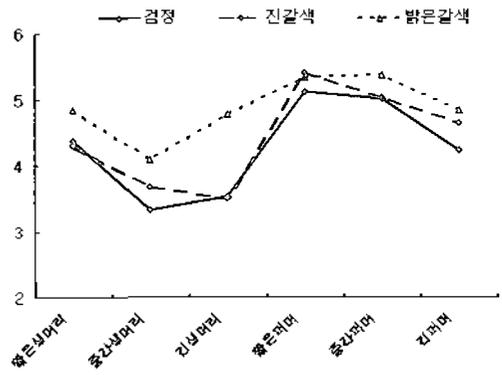
〈그림 4〉 개성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표 2〉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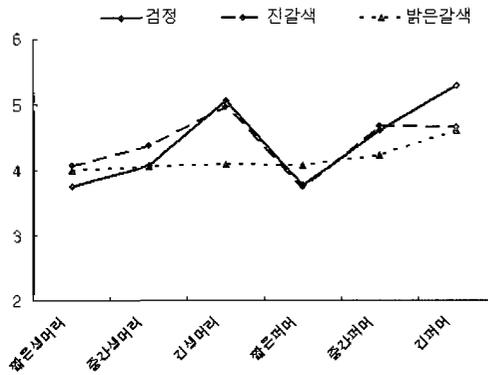
이미지	헤어컬러	헤어스타일					
		짧은생머리	중간생머리	긴생머리	짧은퍼머	중간퍼머	긴퍼머
개성	검정색	2.61	2.18	2.89	3.73	4.06	3.78
	진갈색	2.78	2.42	2.76	4.36	4.55	4.88
	밝은갈색	4.52	3.94	4.71	5.02	5.26	4.74
품위	검정색	5.13	4.52	4.59	3.84	3.45	3.79
	진갈색	4.84	4.84	4.60	3.53	3.00	3.54
	밝은갈색	3.55	3.80	3.48	3.10	2.82	3.22
여성성	검정색	3.75	4.08	5.06	3.76	4.60	5.29
	진갈색	4.08	4.37	4.96	3.74	4.67	4.65
	밝은갈색	4.00	4.06	4.09	4.08	4.23	4.60
활동성	검정색	4.37	3.33	3.54	5.12	5.01	4.23
	진갈색	4.29	3.67	3.51	5.39	5.03	4.64
	밝은갈색	4.84	4.10	4.77	5.34	5.37	4.83



〈그림 5〉 품위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7〉 활동성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6〉 여성성에 대한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긴 퍼머는 여성성이 가장 높았고 긴 생머리의 경우 검정색과 진갈색이 밝은 갈색보다 여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은색 머리가 강하고 단호한 양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한 Mahannah⁴¹⁾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헤어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로 해석되며, 헤어컬러에 대한 이미지 지각이 문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활동성의 상호작용 형태(그림 7)를 보면 진갈색 및 밝은 갈색의 짧은 퍼머와 중간길이 퍼머가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긴 생머리는 밝은 갈색이 검정 및 진갈색보다 활동성이 원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짧은 퍼머는 헤어컬러에 관계없이 모두 활동성이 매우 높

았다.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에서 지각자의 전통주의는 6개 변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전통주의와 헤어스타일은 개성 지각에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F=3.22, p=.00$), 집단별 평균치와 상호작용형태는 〈표 3〉, 〈그림 8〉과 같다. 전통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긴 퍼머머리를 개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였고, 전통주의가 낮은 여성은 중간 퍼머를 개성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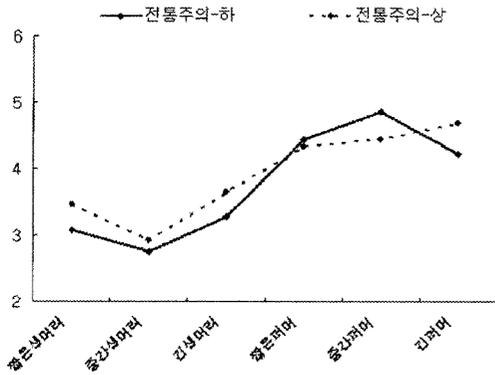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F=4.55, p=.01$), 품위($F=4.55, p=.01$), 여성성($F=3.92, p=.02$), 귀여움성($F=4.38, p=.01$) 지각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9~12〉와 같다.

개성에 대한 상호작용 형태(그림 9)를 볼 때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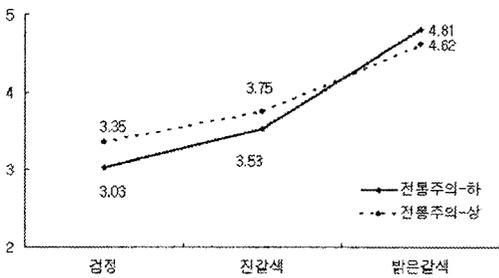
〈표 3〉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스타일에 따른 개성 지각의 평균치

전통주의	헤어스타일					
	짧은 생머리	중간 생머리	긴 생머리	짧은 퍼머	중간 퍼머	긴 퍼머
하	3.07	2.74	3.27	4.43	4.85	4.21
상	3.45	2.92	3.65	4.32	4.43	4.68

41) Lynn Mahannah,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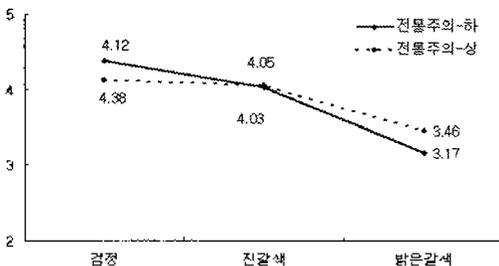


〈그림 8〉 개성에 대한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스타일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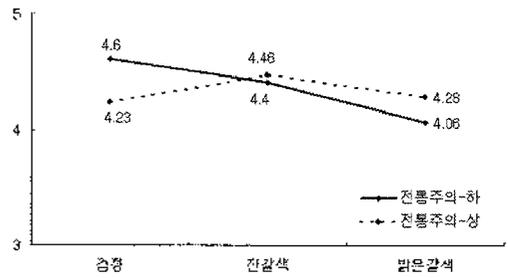


〈그림 9〉 개성에 대한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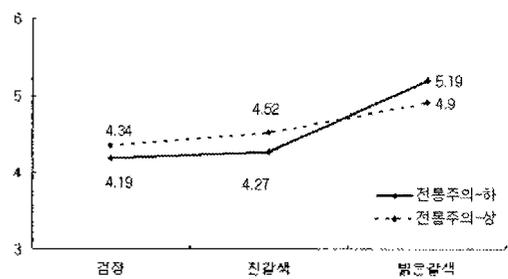
주의가 낮은 여성은 높은 여성보다 밝은 갈색 머리를 더욱 개성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품위에 대한 결과(그림 10)를 보면 전통주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검정을 더 품위있게 보았다. 이것은 전통주의가 낮은 사람들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오히려 검정색 머리를 품위있는 색으로 지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0〉 품위에 대한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11〉 여성성에 대한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그림 12〉 귀여움성에 대한 지각자의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여성성에 대한 결과(그림 11)에서 전통주의가 낮은 사람은 검정색 머리를 여성성이 높게 지각하였고, 전통주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밝은 갈색을 여성성이 높게 지각하였다. 귀여움성 평가(그림 12)를 보면 전통주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밝은 갈색을 귀여움성이 낮게 보았고, 검정과 진갈색을 귀여움성이 높게 보았다. 이것은 밝은 갈색보다 검정이나 진갈색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머리색과 유사한 색이므로 지각자의 전통주의 가치관이 귀여움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헤어스타일 선호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헤어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평가를 종속변인으로, 다른 이미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물질주의와 전통주의 상하 집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4>에서 물질주의가 낮은 집단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표 4〉 헤어스타일 선호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물질주의				전통주의			
	하 집단		상 집단		하 집단		상 집단	
	beta	t	beta	t	beta	t	beta	t
개성	.44	8.56**	.44	8.83**	.45	7.69**	.41	8.97**
품위	.55	14.55**	.73	18.21**	.71	16.82**	.59	16.58**
여성성	.19	5.29**	.04	1.24	.07	1.79	.16	4.35**
귀여움성	.19	3.55**	.32	6.56**	.37	6.57**	.17	3.70**
활동성	.08	1.56	.01	.20	.04	.62	.05	1.09
R^2	$R^2=.614$		$R^2=.586$		$R^2=.598$		$R^2=.599$	
F	F=102.99**		F=99.15**		F=95.05**		F=106.31**	
DW 계수	DW=1.91		DW=1.92		DW=2.11		DW=1.82	

* $p<.05$ ** $p<.01$.

에 개성, 여성성, 귀여움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61.4%였다. 물질주의가 높은 집단의 선호도에도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개성, 귀여움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58.6%였다. 즉 물질주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품위있는 헤어스타일을 중요시 하였으나, 물질주의가 낮은 여성은 헤어스타일의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평가가 높아졌으나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선호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통주의가 낮은 집단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개성, 귀여움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59.8%였다. 전통주의가 높은 집단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에도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개성, 귀여움성, 여성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59.9%였다. 역시 전통주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품위는 헤어스타일 선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전통주의가 높은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의 선호 평가에 여성적인 이미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전통주의가 낮은 여성들에게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여운 이미지가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물질주의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품위, 개성, 귀여움성을 중요시하였고, 전통주의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품위, 개성, 귀여움성과 함께 여성적인 이미지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또 활동적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선호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지각 대상자의 헤어스타일 및 헤어칼라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지각자의 헤어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사회적 가치는 물질주의와 전통주의를 조사하였으며, 이미지 지각은 선호평가, 개성, 품위, 여성성, 귀여움성, 활동성의 6개 변인을 포함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55세 여성 343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각자의 물질주의, 헤어스타일, 헤어칼라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심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물질주의는 품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 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은 6개 변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지각 대상자의 헤어스타일의 품위를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짧은 생머리는 여성성은 낮았으나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직 직장여성들이 짧은 생머리 스타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품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본다. 중간길이의 생머리는

개성과 선호 평가가 낮았고, 긴 생머리는 여성적으로 보였으나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짧은 퍼머는 활동성과 귀여움이 높았고, 중간길이 퍼머는 귀여움이 높았으나 품위가 낮았으며, 긴 퍼머는 가장 여성적으로 보였으나 품위가 낮은 편이었다.

헤어컬러는 선호 평가를 제외한 5개 변인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밝은 갈색 머리는 개성적, 활동적으로 보이면서 귀여움이 높았으나, 품위가 가장 낮았다. 검정색 머리는 품위가 높았으나 개성은 가장 낮게 지각되었으며, 검정과 진갈색 머리는 밝은 갈색보다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물질주의와 헤어컬러에 따라 선호평가와 품위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밝은 갈색의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밝은 갈색을 더욱 품위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사회상승을 하려는 욕구가 높으므로 남의 눈에 띄기 쉬운 밝은 갈색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품위, 여성성, 활동성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짧은 생머리는 밝은 갈색인 경우 다른 색보다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 짧은 생머리는 검정색과 진갈색인 경우 밝은 갈색보다 훨씬 더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고, 밝은 갈색의 중간길이 퍼머는 가장 품위가 낮았다. 검정색 긴 퍼머는 여성성이 가장 높았고, 진갈색 및 밝은 갈색의 짧은 퍼머와 중간길이 퍼머는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지각자의 전통주의에 따라 이미지 지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통주의와 헤어스타일에 따라 개성 지각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전통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긴 퍼머머리를 더 개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전통주의와 헤어컬러에 따라 개성, 품위, 여성성, 귀여움 지각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전통주의가 낮은 여성은 높은 여성보다 밝은 갈색 머리를 개성, 여성성, 귀여움이 높게 지각하였다. 전통주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검정과 진갈색을 귀여움이 높게 보았다. 이것은 밝은 갈색보다 검정이나 진갈색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머리색과 유사한 색이므로 지각자의 전통주의 가치관이 귀여

운 이미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본다.

헤어스타일 선호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질주의와 전통주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품위, 개성, 귀여움성은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물질주의가 낮거나 전통주의 가치가 높은 여성들은 여성성이 헤어스타일의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과 전통주의가 낮은 여성들은 여성성이 헤어스타일 선호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주의 가치가 높은 사람과 물질주의 가치가 낮은 사람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활동적인 이미지는 선호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헤어스타일, 헤어컬러와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는 여성의 이미지 지각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한 명의 모델만 사용되어 지각 대상자의 인상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출력한 지면을 통해 표현된 헤어스타일이 주는 느낌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수가 적었으므로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가치관에 대한 더욱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또 2명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여 헤어스타일과 얼굴 인상이 동시에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며, 헤어스타일과 화장 정도, 의복, 모자, 액세서리 착용 등 다양한 조건과 관련된 체계적인 이미지 지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피험자를 조사함으로써 지각자의 문화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며, 헤어 디자인의 요소별로 자극물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시각적 평가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구자명, 이명희 (1999). "성인여성의 가치의식과 의복 선택성향 및 의복난관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지* 23권 3호.

- 김동철 (1996).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호경향과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숙 (1999).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휴 (1996). "패션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이경희 (2000).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정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7호.
-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주연 (1991).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정, 임숙자 (1998). "소비자 가치체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6호.
- 백형진 (1998). "중학생의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자 (1978). "가치관과 의복선호색간의 상관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민 (2001). "여성 헤어스타일과 헤어디자인 감정 이미지 예측모형 개발."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성 (2001).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이명희, 김영지 (2000). "국내 및 외국 의류 상표수용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4권.
- 이선재 (1987). "한국여성의 가치관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권 1호.
- 이영미, 서미아 (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권 4호.
- 이현경 (2003). "소비자 가치와 스포츠웨어 추구태도 및 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경복, 임숙자, 조진숙 (1995).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4호.
- 임희정, 이희현 (2002).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에 따른 헤어스타일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4권 1호.
- 전용민 (2003). "여자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범모 (1976).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최은영 (2001). "소미자 생활한복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응연 (1974).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reeknore, Anna Mary (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Mahannah, Lynn (1968).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 Pancer, S. M., and Meindl,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6.
- Peterson, D., and Curran, J. P. (1976). "Trait attrac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Vol. 93, No. 2.
- Richard, E. A., and Hawthorne, R. E. (1971).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3.
- Sweat, S. J., and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